

영암군민속씨름단, 지역 대표 스포츠 콘텐츠 발돋움

창단 이후 압도적 성적... 전국에 영암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 특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이끌고 캐릭터 굿즈 수익 등 지역경제 보탬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역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다.

영암군은 민속씨름단이 영암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노릇을 특출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프로씨름단인 현대삼호중공업의 현대코끼리씨름단이 1년여만에 해체되자 2017년 1월 '대한민국 제1호 민속씨름단'의 이름으로 창단했다.

씨름단은 늘어나는 운영비 등으로 존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난해 주민 공론화를 거쳐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단 이후 지난달까지 장사 66회, 전국체전 금메달 6회, 단체전 우승 10회, 총 82회 우승의 압도적 성적을 냈다.

씨름단은 영암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에도 한 몫하고 있다.

씨름단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포함한 방송 출연 등으로 꾸준한 영암을 알리고,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콘'을 선보이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이끌고 있다.

'잡채' 기술이 주특기인 씨름단 주장 최정만 장사는 이 기술을 써서 승리할 때마다 10만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잡채'가 행사로 모은 기부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씨름단 팬을 중심으로 포털 네이버밴드에 공식 서포터즈도 생겼다.

선수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기를 더해가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영암군도 씨름단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굿즈도 개발·판매해 수익도 창출하기로 했다.

씨름단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영암 초·중·고와 연계해 방과 후 학습 등 학교 체육에 씨름 프로그램을 접목에 나선다.

전용 씨름훈련장 건설도 속도 내고 있다.

전국 최고 씨름단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영암군민이 언제나 씨름단의 훈련 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대민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가칭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도 구상 중이다.

'대한민국 최강' 군민속씨름단의 우수인력자원을 활용해 씨름 품새와 교과 개발, 지도자·선수 육성 등 K-씨름 진흥의 지역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씨름 아카이브센터와 교육관, 체험관, 전용훈련장 등을 갖춘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지 제공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6만 영암군민과 전국 16만 영암군 향우는 씨름단에서 단단한 공감과 뿌듯한 자긍심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이 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진도군, 시민단체 요구 팽목항 4·16 기억공간 부지 제공

10주기 맞아 상생 방안 건의 수용

진도군이 세월호 참사(2014년) 당시 희생자 시신이 수습돼 처음 옮겨졌던 팽목항에 '4·16기억공간' 조성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도군은 임시 분향소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도 연대 등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가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내놓은 상생 방안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등 진도연대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진도군을 찾아 진도항에 팽목4.16기억공간 조성 등을 건의했다.

군은 시민단체 요구에 상생 차원에서 부지 제공 등의 검토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기억공간의 경우 공공사업 잔여지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했으며, 팽목 4·16공원 기립비도 최소면적으로 바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팽목 4·16 공원은 진도항 방파제 상부공간을 활용해 길이 200m, 폭 8m를 제공할 방침이다.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은 전남도가 약속했고, 국무조정실도 추모 공간의 위치와 규모 등을 담은 협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진도군은 제주-진도 여객선 항로 건설

공사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팽목항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팽목항에서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남동리에 국비로 조성되는 국민해양안전관에 세월호 추모 기록 공간이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공간 추가 조성을 반대한 이유로 제시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상생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할 뿐이며 부지 제공 이외에 별도 예산 지원은 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 인프라 구축 속도

영암군, 산단공 공모 200억 확보

영암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2024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이 2024~2026년 총 332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하나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은 인프라 구축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대불산단의 기존 에너지 자립률 11.42%를 40.13%까지 끌어 올리고, 탄소 저감과 RE100 인증 지원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불산단 기업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을 지원해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조성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 저감 지원 및 에너지 솔루션 제공 등을 추진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불산단의 에너지 자립, 지역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이어가겠다"면서 "RE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친환경 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선도적 청정에너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진도에서 한달 여행' 참여자 모집 숙박·교통·식비·여행자 보험 지원

진도군이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를 지원하는 장기체류 프로그램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진도군은 문화·관광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를 진행한다

대상은 현재 광주·전남에 거주하지 않는 진도 여행 희망자로 7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6명을 선정하며 팀별로도 지원가능하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1일 기준 ▲숙박비 8만원 ▲교통비 2만원 ▲식비 3만원과 여행자보험을 지원한다.

16일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전자메일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선정자는 19일 발표한다.

박지선 진도군 주무관은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 지원으로 보배섬 진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세계김밥페스타에 선보일 신안김밥 6종 공개

연구회원 30여명에 기술 전수 교육

신안군이 오는 27일 열리는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선보일 신안김밥 6종을 공개했다.

신안군 농산물가공센터는 최근 김밥 연구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안김밥 6종에 관한 기술 전수 교육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김밥 연구회원들은 김밥 6종을 개발하고 실습을 했다.

이번에 개발한 김밥은 신안소금김밥·대파김치, 신안그냥김밥, 신안정원김밥, 신안양파김밥, 신안바다김밥, 신안홍어카츠김밥 등이 있다.

신안군의 우수 농수산품인 대파, 양파, 전복, 톳, 홍어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들 김밥은 오는 27일 열리는 김밥페스타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김밥 종류에 따라 2000원, 4000원, 7000원을 내고 플라 먹을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효정씨는 "축제를 찾아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신안김밥의 맛을 보여 드리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며 "신안세계김밥페스타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선보일 김밥 6종.

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김밥 경연대회인 신안 K-김밥월드컵과 조리 명장 푸드쇼, 체험 공간, 베품시장 등이 열린다.

신안김밥을 판매하는 배 터지는 김밥파티존, 휴게공간인 김밥피크닉 거든, 어린이 놀이터, 전시 공간·사진 촬영 공간 등도 운영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e@kwangju.co.kr

목포 평화광장 환경보존회, 쓰레기 수거·환경정화 캠페인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봉사활동

오는 5월 25일 목포시를 중심으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달맞이 공원과 평화광장 환경보존회' (이하 환경보존회)가 바닷가와 광장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달맞이 공원과 평화광장은 목포의 대표적인 친수 공간으로 꼽히지만, 실뽕장어 잡이와 낚시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장마 때면 영산강 등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환경보존회는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환경 보존과 목포 지역발전은 목표로 매달 두 번째 토요일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구역 내 시설물 및 수목의 훼손에 대한 보호 및 신고 ▲근린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창출 및 건의 ▲구역 내의 오물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의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협조 및 홍보 등이 있다.

권상용 환경보존회 회장은 "지난해 전국체전과



장애이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목포시가 이번엔 전국규모의 전국소년(장애인)체전을 개최하게 돼 쓰레기 수거 등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며 "우리 환경보존회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목포의 환

경지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파수꾼이 돼 이 일대 환경보존은 물론이고 나아가 목포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김산(앞줄 가운데) 무안군수가 새로 개통한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구간을 걷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영산강 청호리 자전거길 2.2km 개통

무안군이 주룡나루-청호터-죽정천 하류에 이르는 '영산강 청호리 자전거길' 2.2km 구간을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우선도로인 청호리 구간은 폭이 좁아 자전거와 차 사고 우려가 있었다.

무안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해서 노선 변경을 건의한 결과 국비 7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9년 10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사무소가 착공한 뒤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완공했다.

이 공사를 통해 데크로드 1.27km, 콘크리트 포장 875m의 자전거길이 연장(2.2km) 조성됐다.

연결된 구간인 주룡나루-청호터-죽정천 하류 자전거길 2.2km는 무안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았다. 단절됐던 청호리 구간이 연결되면서 상사배위 전설이 깃든 영산강의 전경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시 풍탄대교-느리자-합평 동강교 구간도 신규로 자전거길이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 서포터즈' 모집

영광군은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24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SNS 홍보단은 e-모빌리티 관련 소식과 엑스포 개최 정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영광군은 모두 1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영광 e-모빌리티 SNS 홍보에 관심이 있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본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홍보단으로 위촉되면 영광 e-모빌리티에 관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자신의 개인 SNS에 월 2

건 이상 게시한다. 활동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한다. 활동 실적에 따라 홍보 요원에겐 월마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SNS 서포터즈를 통해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대내외 널리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엑스포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함께 할 많은 이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cw@kwangju.co.kr